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11장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산상설교』 상권 제11장, 인쇄 147~160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9

> ❓ 그냥 싸움 피하고 좋게좋게 넘어가는 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아닌가요?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일곱째 복을 팔복 전체의 짜임 속에 놓는 데서 출발한다. 이 복은 온유와 짝을 이루고, 새 사람만 살 수 있는 삶이다. 이 말씀은 정치적 메시야를 기다리던 유대인에게 충격이었다. 산상설교를 “신학 없는 아름다운 윤리”로 사랑한 인도주의자들에게도 정면으로 맞선다. 전쟁과 불화의 뿌리는 사람 마음의 죄이므로 답은 신학적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타고난 무던함이나 유화책이 아니라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혀를 다스리고 먼저 다가간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은 평강의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고 결론짓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본으로 세운다.

📜 절별 정리

📜 1. 팔복 속 자리와 유대인의 충격

로이드 존스는 이 복을 마태복음 5:6에서 '채움 받은 사람'이 맺는 결과로 본다. 그는 앞의 세 복과 뒤의 세 복이 짝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심령의 가난은 긍휼과, 애통은 마음의 청결과, 온유는 화평과 짝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복도 다른 복들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삶이다. 새 나라의 새 사람만

하고 물었고, 오천 명을 먹이신 뒤 무리는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 주님은 이 복으로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는 원칙을 다시 못 박으신다.

1. 앞의 세 복과 뒤의 세 복은 짝을 이룬다
2. 온유와 화평은 한 쌍이다
3. 이 복은 새 사람만 살 수 있다
4. 유대인은 정치·군사적 메시야를 기다렸다
5.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 **마태복음 5:6**
> 채움 받은 결과로 뒤의 복들이 나온다는 연결점
>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마태복음 5:5**
> 화평과 짝을 이루는 온유의 복
>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마태복음 11:3**
> 세례 요한도 정치적 메시야 기대에 붙들려 있었다는 예
>
>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 **요한복음 6:15**
> 오병이어 뒤 무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한 장면
>
>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 **요한복음 18:36**
> 주님의 나라는 싸워서 세우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새 사람만이 이런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2. 신학 없는 산상설교라는 착각 — 전쟁의 뿌리는 죄

20세기 초부터 어떤 사람들은 신학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바울이 율법주의로 단순한 예수의 복음을 망쳤다며 서신서는 버리고 산상설교만 붙들었다. 산상설교의 아름다운 이상을 서로 설득해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 견해가 철저히 어리석다고 본다. 그는 “세상에는 왜 전쟁이 있는가? 국제연맹은 왜 실패했고, 유엔은 왜 실패하는 것 같은가?”를 묻는다. 그의 답은 정치·경제·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 곧 죄다. 정욕, 탐욕, 이기심, 자기중심성이 개인·집단·국가의 모든 불화를 낳는다. 그러므로 인론과 죄론 없이는 현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교회도 국제기구를 향해 인간의 노력만 설교하는 과오를 범했다. 다만 그는 국제적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덧붙인다. 그는 산상설교만큼 인도주의와 이상주의를 철저히 정죄하는 대목은 없다고 결론짓는다.

1. 인도주의자들은 산상설교의 본질을 뺐다
2. 전쟁과 불화의 원인은 오직 죄다
3. 답은 정치·경제가 아니라 신학이다
4.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표면만 바뀐다
5. 전쟁 소문은 성경의 진단을 확증한다

마태복음 15:19

악한 생각·살인 등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진단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 3.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맞는 사람

그는 먼저 오해를 걷어낸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타고난 성품 좋은 사람이 아니다. 팔복은 어느 것도 자연 성품을 말하지 않는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 말썽을 피하려고 무엇이든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공평과 정의감이 부족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을 때가 많다. 참 화평자는 유화주의자도 아니다. 유화책은 전쟁을 미룰 수는 있어도 끝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화평자는 두 면을 다 가진다. 수동적으로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평화로운 사람이다. 능동적으로는 “잠자는 개는 그냥 두라”며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려고 힘쓰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는 데 관심을 둔다.

1. 타고난 무던함은 화평이 아니다
2. 대가를 가리지 않는 평화는 정의를 버린다
3. 유화책은 전쟁을 미룰 뿐 끝내지 못한다
4. 수동적으로 평화롭고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든다
5. 궁극 관심은 사람과 하나님의 화평이다

> **마태복음 5:9**
> 설교 본문. '화평하게 하는'은 평화를 만드는 능동적 행위다
>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마음은 화평을 만들 수 없다. 여기에 자아에 대한 새 견해가 더해져야 하며, 이것이 온유와 이어지는 지점이다. 사람은 본래 “이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주지?”로 모든 것을 따진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니 전쟁은 필연이다. 심령의 가난, 애통, 의에 주림을 지나온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아를 잊는다. 로이드 존스는 생래적 자아를 미워하게 되었는지를 그리스도인 여부의 시금석으로 삼는다. 둘째는 남에 대한 새 견해다. 까다로운 사람을 보면 “왜 저 모양이야?”가 아니라 “이 세상 신의 지배 아래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긍휼히 여긴다. 그래야 그를 도울 자리에 선다. 셋째는 새 세계관이다. 화평자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다툼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지럽히는 일로 본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불의와 고난까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

1. 화평에 앞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2. “나는 어떻게 되나”가 전쟁의 씨앗이다
3. 자아를 잊는 것이 온유와 이어진다
4. 까다로운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본다
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감내한다

> **마태복음 5:8**
> 청결한 마음이 화평의 전제라는 논리적 순서
>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요한복음 12:25**
>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 자아를 버리라는 시금석
>
>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 **로마서 7:24**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 자아를 미워하는 고백
>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 — 남을 보는 새 관점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고린도후서 4:4

이 세상의 신에게 눈이 가려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5. 실제로는 어떻게 — 혀, 생각, 먼저 다가감

로이드 존스는 화평자인지는 연구실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에서 증명된다며 일부러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 첫째,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운다. 혀만 다스려도 세상의 불화는 훨씬 줄어든다. 들은 말에 대꾸하지 말고, 남을 해치려는 말을 옮기지도 말아야 한다. 친구에게 다른 사람이 한 불친절한 말을 전해 주는 것은 가짜 우정이다. 그는 국제사회도 말이 너무 많고 다른 나라를 늘 비방한다고 지적한다. 둘째, 상황을 복음의 빛에서 생각한다. “복음의 명분, 교회,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물으면 화평이 시작되지만, 사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난다. 셋째, 적극적으로 평화의 길을 찾는다. 원수의 공격에 대꾸하지 않고, 그 속의 마귀를 보며 그를 위해 기도한다. 그다음에는 자신을 낮춰 먼저 찾아가 말하고 사과하고 친절을 베푼다. 넷째, 어디서든 화평을 퍼뜨리는 사람, 누구나 다가와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1. 화평은 실제에서 증명된다
2. 대꾸하지 말고 말을 옮기지 마라
3. 남의 험담 전달은 가짜 우정이다
4. 사적으로 말고 복음의 빛에서 생각하라

듣기는 속히,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 화평의 첫걸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로마서 12:20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라 —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행동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평화를 이루는 첫 걸음 하나는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 6.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 평강의 하나님을 닮음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일컬음 받는다'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소유하신다', 곧 인정하신다는 뜻으로 푼다. 화평자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다. 성경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른다. 전쟁은 인간과 죄와 사탄에게서 왔지만, 하나님은 위엄과 체면을 지키지 않고 먼저 움직여 아들 안에서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고집하셨다면 온 인류는 멸망했을 것이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들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는 에베소서 2:14-16을 일부러 마지막에 두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화평자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만은 잊지 않게 한다. 결국 화평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는 욕을 당해도 욕으로 갚지 않으신 주님을 따르라고 초청하며 설교를 마친다.

1. '일컬음 받는다'는 하나님께 소유된다는 뜻
2. 화평자는 평강의 하나님을 닮은 자녀다

5. 화평자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반복한다

히브리서 13:20

"평강의 하나님" —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영광스런 정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사야 9:6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골로새서 1:20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 화평의 방법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2:14-16

원수 됨을 자기 몸으로 허물고 새 사람을 만드셨다 — 화평자의 원형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빌립보서 2:4-8

남의 일을 돌아보고,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illegible]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베드로전서 2:22-23

욕을 당해도 욕으로 갚지 않으신 주님을 따르라

[22]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화평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팔복

마태복음 5:3~12의 여덟 가지 복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

싸우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 사이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유화주의

충돌을 피하려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양보해 당장의 평화를 사는 태도다.

인도주의·이상주의

신학 없이 인간의 선한 노력과 높은 도덕적 이상으로 세상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다루는 신학 분야다.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리스도인 안에 남아 있는 죄된 본성과, 하나님이 새로 주신 생명을 가리킨다.

생래적 자아

태어날 때부터 지닌,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따지는 본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자녀로 소유하고 인정하신다는 뜻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타고난 무던함이나 유화책이 아니라, 은혜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다.
- 세상의 전쟁과 불화의 뿌리는 마음의 죄이므로, 산상설교는 신학 없는 윤리가 될 수 없다.
- 화평자는 자아를 잊고, 남을 긍휼히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감내한다.
- 실제로는 혀를 다스리고, 복음의 빛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낮춰 먼저 다가간다.
-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평강의 하나님을 닮았기에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